2022년도 상반기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회계교육 사전 질의 및 답변

2022-03-17

구분	질문	답변	비고
개정된 정산보고 양식	금년 정산 보고 관련 수입지출명세서의 작성 품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01-18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정산보고 양식 개정 안내(2022-01-28 메일 발송) 참조 - 22년 신규사업, 21년도 선정된 제안형사업, 21년 선정된 전략형사업 (별도 양식)은 사업비 통합운영으로 개정 양식을 사용 - 21년 및 이전 선정 및 착수된 사업은 종료시까지 부담금 분리편성 유지(기존 지급대상 양식 사용) 	
	개정된 정산보고양식, 사전집행과 대차처리, 가중평균환을 적용의 세세한 점이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보고양식 개선) 금번 교육내용 참조 ○ (사전집행과 대차처리) 사업비 통합운영에 따라 '선집행'이라는 개념은 발생하지 않음 - 기존사업(21년 및 이전 선정 및 착수된 사업)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KOICA 부담금 지급시 까지 KOICA 부담금으로 편성된 세목의 집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파트너부담금 혹은 사업비 외 재원을 투입하여 KOICA 부담금 유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선집행을 위해 KOICA 부담금 외 재원을 사용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사업비 전용계좌에 입금한 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KOICA 부담금이 지급되면, KOICA 부담금 지급일까지 집행금액 총액을 KOICA 부담금에서 파트너부담금 계좌 혹은 사업비 외 파트너 기관에서 가져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가중평균환을적용) 금번 교육내용 참조 및 회계법인 교육영상(지급대상 작성 방법) 참조 	
	코이가 부담금과 파트너 부담금 통장이 통합되었는데, 해외 송금 진행 시 재원별로 송금을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차원에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한 번에 코이가 부담금 및 파트너 부담금을 송금하게 된다면 한 통장에서 두 번에 나눠서 송금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수입지출명세서는 재원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명확히 하고자 질문드립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를 해외로(사업현장) 송금하는 경우 재원구분 없이 일괄 송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 사업비 통합운영을 통해 부담금 간 개별 송금할 수밖에 없었던 비효율을 개선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2년 신규사업, 21년도 선정된 제안형사업, 21년 선정된 전략형사업
	코이가와 자부담금의 구분이 없어지면 기존에 구분하여 사용하던 통장도 하나로 통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통합운영 대상 사업은 국내 사업비 전용계좌 1개, 해외 사업비 전용계좌 필수 1개(달러화, 현지화 구분 시 2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사업(21년 및 이전 선정 및 착수된 사업)은 재원별 분리편성 계속으로 기존과 같이 국내 사업비 전용 계좌 2개(KOICA 부담금, 파트너 부담금) 사용 필요 합니다. 	
	부담금 통합관리에 따른 예산/회계정산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참조 	
인력변경	급작스럽게 변경된 투입인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하고, 진행해야하는지 전책적으로 물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책임자 및 핵심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KOICA에 변경이 필요한 사유 및 일시를 공유 ○ 해당 인력의 부재 전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경우 인력변경의 사전 요청 필요 ○ 해당 인력의 부재 전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력의 직무수행이 어떻게 분담되어 이행되는지 내용과 대체인력 투입 계획 (채용 혹은 선발 등)을 KOICA에 공유(KOICA 담당자와 협의 및 필요시 공문행위) ○ 해당 인력의 대체인력이 확정되어 투입일시가 정해지면 해당 일자 전에 KOICA에 인력변경 사전승인 요청 ○ 사업책임자 및 핵심투입인력이 아닌 경우 동일 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후 1개월 이내 KOICA에 통보(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2개월 이내 통보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인력변경시 필요 조치사항) 변경요청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일 / 일 할계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참조 	
환차손 발생	환차손 발생 시 일반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별 집행한도액이 당초 집행목적(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바, 1차적으로 예산전용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권고 ○ 일반관리비 또한 예비비성 지출이 가능하므로 일반관리비로 지출처리 가능 	
	(환차손 발생문제) 환율적용시 가장 좋은 방법(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참조 - 최대한 기속통화(미화)를 보유하면서 현지화 지출이 필요할시 수요에 따라서 환전 혹은 송금하는 방식 필요. 다만, 잦은 환전이으나 송금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 및 행정비효율이 있을 수 있는 바 균형적인 접근 필요 	
	<p>1) 2022년부터 코이가와 파트너기관 사업비를 분리하지 않고 1개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현지)에서도 똑같이 1개의 통장으로 관리해야할까요? 그리고 지속사업인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계속 이용해도 될까요? (20-21년 사업완료/ 22-23년 약정체결 예정 인 경우)</p> <p>2) 예산에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3-4급이하 적었다면 사전 상 1-2급 인력이 출장하게 될 경우 예산 내에서 집행되더라도 안되나요? 아니면 1-2급 인력일지라도 3-4급 기준에서만 지급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3-4급 2명 여비를 1-2급 1명 여비로 지급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 <p>3) 기관 자체 회계 시스템에 의해 관/항/목명이 정해지는 관계로 코이카에 제출하는 관/항/목명이 다르고 세목이 코이카에 제출된 목명과 동일하게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코이가) 목/세목: 봄/여름 (기관) 목/세목: 자재명/봄 이런식으로 회계가 편성될 것 같습니다.</p>	<p>1) - 현지에서도 1개 전용계좌(필요시 미화, 현지화 2개 계좌) 사용하시면 되며, 부담금간 구분이 필요 없으므로 부담금 구분을 위한 계좌 구분은 불요</p> <p>- 22년 약정되는 지속사업의 경우 기존 사용하시면 통장 잔고 '0원'으로 정리 후 사용 가능 합니다(사업 착수후에는 KOICA 부담금 지급전까지 0원일 필요는 없음. 즉, 사업 약정체결 후 바로 파트너부담금 입금하여 사업비 집행가능).</p> <p>2) - 국외출장 인력은 누가갈지 확정하면 좋겠지만,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해당 국외출장 비용이 세목예산 내 집행 가능한 상황이면 출장이 가능합니다. 전체사업비에 따라서 해당 출장여비가 세목을 초과하는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변경을 사전 승인 받아 집행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p> <p>- 예시로 주신 사항 모두 세목예산 내 집행 가능한 상황이면 진행 가능합니다.</p> <p>3) - 지급대상 정산보고 양식에 따라 보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p>	

	22년 진입형 성장형 지속사업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이번 코이카 고시환율을 1130원으로 안내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환율이 1210원 정도에서 오름 내림 하는 상황에서 1130원으로 예산안을 작성한다면 손실 금액이 많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안 작성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혹은 저희가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고려해야하는 점이나 산출내역을 다르게 내야하는 것일까요?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환차손 발생에 따른 내용 참조 ○ 예산서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미 물가상승이나 공급 용역의 비용이 증대된 경우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년채용시, 채용하려는 청년이 해외에 이미 체류하고 있을 경우 청년채용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와 4대 보험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점수를 획득한 사업의 경우) 청년이 해외 체류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 채용이 원칙이며, 근무지가 해외인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등 가입이 필요하고,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4대보험 중 가입이 가능한 보험 가입 후 자격 득실 확인서로 증빙을 제출하도록 함. 	
	주요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파트너분담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입지출명세서 상에 자체분담금 내역을 적을 시에, 사업비로 인정이 되는 금액만 적는것이 맞을지요? 예를 들어, 10을 입금하였지만 이 중 결과적으로 8만 사업비로 사용된 경우, 10을 입금한 입금 일자에 8의 금액만을 기재하는 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 통장사본에 찍히는 최종 잔액이 상이할텐데(실제 통장잔액 0, 사업서류상 2)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의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장에 영수증빙의 전체금액을 작성하여도, 세목내 집행잔액에 맞추어 절사한 금액을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 영수증빙의 전체금액을 작성하더라도 총괄명세서상 세목내 집행금액의 집행율이 100%로 처리되므로 문제 없음. 	
	해외 사업지역 현지에서 현물 지원 산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료 말미 예산편성 기준(현물지원 분담 부분) 참조 - '지급대장 변경양식 활용' 교육자료 p.25 '예산서 작성 Part1' 영상 42분부터 ○ 현물지원의 분담금액은 약정제결 해당연도 기준환율기준 원화로 산출(지급대장 작성 교육내용 참조) 	
	분담금 미입금상태에서 선집행시 적용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를 입금하여 송금한 경우에는 KOICA 분담금 입금 후 원화끼리 대체처리 ○ 현지에서 보유하고 있는(계좌에 거치되어 있는 혹은 계좌에 입금하여) 금액의 경우 KOICA 분담금 지급 후 현지화로 송금하고 해당 현지 화끼리 대체처리(즉, KOICA 분담금 분을 선집행한 경우에는 실제 KOICA가 분담금의 현지화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편리) 	21년 및 이전 선정 및 착수된 사업
기타	1. 파견자 체재비 계산 관련 - (질문) 파견자 체재비는 '파견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실제 파견국에 체류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2022.1.1-12.31 파견 상태라면, 그 중 국외휴가 등으로 파견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지급 가능한지 2. 코로나19 안전관리 지원 관련 (협시민-536, '22.3.2) - (질문) 자가격리기간(7일) 비용지원은 숙박비만 해당하나요? 12만원 내에서는 식비 지급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시설격리 시 숙박+식사가 지원되었던 맥락에서 문의드립니다.) 3. 인력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관련 (안내서 p.16-17) - (질문) 아래 예시의 경우, 예산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A직원 이 그만두고 신규직원 B를 채용하는 상황. A의 급여 월단가는 100만원, B의 월단가는 90만원. 당장 다른 활동에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기 책정된 급여단가 100만원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당장 예산변경은 필요하지 않음.하지만 해당 포지션 직원의 급여 월단가는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변경된 것임. 4. 모바일페이 수수료 관련 - 아프리카 대륙 일부 국가의 경우, 사업활동의 참가자(수혜자)에게 지급하는 일부/교통비는 보통 모바일페이를 지급하며 건당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이 경우 일부/교통비는 직접사업비로, 수수료는 일반관리비로 분리하여 지급대장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 (질문) 모바일페이 수수료는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수수료성 경비가 아닌 사업 활동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이니, 직접사업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파견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 숙박 및 식비, 의약품비 등 집행 가능하며, 관련 내규에 따라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사업비 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집행 (예를 들어 숙박비를 기관에서 부담하거나 격리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비에서는 식비나 의약품비 항원키트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3) - 사전승인 대상은 아니며, 실제 해당 세목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이 때문에 사업운영에 따라서 향후 타 세목으로 전용하여 집행 4) - 해당 집행 세목에 수수료지급분은 산출내역으로 포함시켜서 직접사업비에서 지급대장 1행으로 처리가능(일반관리비 분리 지출시 지급대장 행 추가 작성 등 비효율 발생) 	
	예산변경을 할 때 예를 들어 한 세목에 대해서 100만원을 줄이고자 할 때 50만원은 사전 승인 요청, 50만원은 사후 통보로 처리할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사후통보 대상 범위가 상이하나, 동일 목내 세목 간 전용 수요가 있는 경우(즉, 50만원을 가져갈 세목이 동일 목내 있을 때)에는 사후통보로 처리하고, 전용 수요가 목간 혹은 횡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요청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차익 발생 시 반납이 원칙인데 잔액에 카운트가 되는지? 이때 95%의 집행이 현재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리가 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서 상 환차익은 반납이 원칙이며, 해당 세목예산의 집행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서(원화 환산금액에 해당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임 - 이는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면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 필요 예산항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송금환을 적용시에는 현지 사업비 통장에 현지화 잔액을 올해 사업비로 현지조달 수입처리하려면 수입지출명세서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가중평균환을 적용 수입지출명세서에는 현지 조달 수입 처리방법 부분이 있는데, 혹시 현지 조달 수입이 있는 해에는 송금환을 말고 가중평균환을만 쓰는건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해당 현지화의 원화환산 환율을 적용하며(혹은 해당 환율에 대한 증빙이 없거나 환율을 알 수 없을때는 해당연도 사업개시일(예 1월1일) 개별환율을 적용하며, 지급대장파일 '수입지출명세서(송금환율)_작성' 시트에 해외사업장 사업비 분에 수입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현지화 금액만 작성) - 추가적으로 2. 송금환을 첫 행에 송금회차를 0으로 작성하고 5월 송금환율이 도출되는 칼럼(송금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환율로 원화-현지화 환산환율이 도출되는 산식이 걸려있으나) 에 직접 원화환산 환율을 입력(key-in)해주시면 됩니다. ○ 아닙니다. 해당 연차의 환율 적용 방식과 상관없이 현지조달 가능합니다. - '지급대장 변경양식 활용' 교육자료 p.25 '지급대장작성 및 환율적용방법' 참조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 되고 해당 대학 본교가 교비로 파트너분담금을 분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법에 따라 대학 본교는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 명의로 계좌에 최초 예산출연 시를 제외하고 예금을 이체할 수 없음. ○ 따라서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면서, 파트너분담금은 대학 교비로 분담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 통합운영이 되더라도 사업비 전용계좌를 2개 사용하는 예외사항 발생 	